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olescen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House work, leisure, extracurricular lesso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최 남 숙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 사 유 소 이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Choi, Namsook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You, So-Ye

〈목 차〉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amount of time use for house work, leisure and extracurricular lesson used by adolescents and to explain its influencing factors. Tob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of time use because amount of time use was a limited continuous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unt of time used for house work per day by adolescents was found to be 36min. for weekdays and 64 min. for holidays. Amount of time used for passive leisure per day by adolescents was found to be 203min. for weekdays and 375 min. for holidays. Amount of time used for active leisure per day by adolescents was found to be 74 min. for weekdays and 194 min. for holidays. Amount of time used for extracurricular lesson per day by adolescents was found to be 96min. for weekdays and 36 min. for holidays.

2) Time use for house work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ducation status, education level of mother, job status of mother for weekdays and gender, education level of mother, job status of mother, household income for holidays. Time use for passive leis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ducation status, small children at home for weekdays and gender, education status for holidays. Time use for active leis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ender, education status for holidays, while there was no influencing factors for weekdays. Finally, time use for extracurricular less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ender, education status, household income for weekdays, and age, education level of mother for holidays.

I. 서론 및 문제제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면이나 식사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더 제한된다. 또한 시간은 돈과 같이 저축할 수도 없고, 대체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시간을 값비싼 희소자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경우 시간의 희소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요구가 절실하다(문숙재, 1994; 한경미, 1991).

따라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특정활동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사용의 선택에는 개개인의 태도나 가치가 반영된다. 또한 한정된 시간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시간을 관리하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사용의 관리는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간을 여러 행동 영역에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한경미,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획득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 이후 시간사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왔으며(허경옥·김인숙, 1996), 돈처럼 중요한 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Hendrix, 1984). 따라서 희소자원으로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특히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가정학에서도 1970년대 이후 시간연구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시간을 대표적인 가족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주로 시간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효과적인 가족의 시간사용이 가정생활의 질과 생활양식 및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시간관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또한 개개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는 인구통계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경미, 1991; Hendrix, 1984).

지금까지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의 능률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사용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간사용에 관한 정보가 가사노동의 능률화추구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나 양식, 또는 가계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연구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김

외숙·이기춘,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가계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부의 시간사용 외에 청소년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시간사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 학교수업을 주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중앙일보, 2001년 8월 2일자) 가정이나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의 시간사용 증가로 인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청소년 자신들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의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개개인마다 다양한 사용패턴을 보일 수 있는 가사노동 참여, 여가 및 과외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와 개별 청소년의 특성이나 가정의 특성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가사노동, 여가활동 및 과외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고, 둘째, 각각의 시간사용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도덕이나 인지발달 및 행동 경향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Timer, Eccles & O'Brien, 1985). 특히, 청소년들의 행동은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된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간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시간사용정도를 가능케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활동에 참여

하여 얻을 수 있는 가정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족원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인식에 공헌할 수 있다. 셋째, 이전에는 도외시되었던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여가시간 실태조사 및 분석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여가가 청소년에게 주어지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를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한국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이 차지하는 시간적 부담이나 비중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공은배·백성준, 1994; 김홍주 외, 1998; 유형선·윤정혜, 1999). 따라서 다른 활동과 함께 과외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과외수업시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사용

희소자원으로서 시간의 가치가 인식되면서 시간사용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Robinson, 1996; 박명숙·백경임, 1997 재인용).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과 다른 자원과 달리 절약이나 저축이 불가능하며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i & Hung, 1997; 문숙재, 1994). 따라서 시간이 사용시간의 분배와 조절에 의해서 만이 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개인의 시간관리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박명숙·백경임, 1997). 특히, 제한적인 시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선호에 의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 중에서 특정 활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에 얼마

만큼의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Feldman & Homik, 1981; 박명숙·백경임, 1997 재인용). 특히, 시간이 대표적인 가족자원의 하나로 인식되면서부터 효율적인 시간자원의 사용과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에 주력하여 왔다(한경미, 1991; 박명숙·백경임, 1997 재인용).

또한 Feldman과 Homik(1981)은 시간사용의 선택 과정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개별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된 가치관과의 함수관계로 보고 시간사용에 대한 선택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박명숙·백경임, 1997 재인용). 문숙재(1996)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을 순서화하여 일정한 시간내에 목표한 작업을 달성하는 것을 효율적인 시간관리자로 규정하였다(박명숙·백경임, 1997 재인용). 효율적인 시간사용에 따른 결과는 깨끗한 집, 잘 준비된 식사 등의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취감, 만족 또는 실망 등의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결과는 주로 가정생활활동의 측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한 결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Hendrix, 1984).

이러한 시간의 특성과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신가정경제학파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간의 개념을 경제학적 분석에 도입하여 시장제와 시간의 결합이 가계 또는 가족구성원의 효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ies)을 창출함을 주장하였다(Berk, 1980; 허경옥·김인숙, 1996 재인용). 구체적으로 시간배분에 대한 가정경제학적 접근은 Mincer(1962)와 Gronau(1977)에 의한 것이 그 시초이며, 그 중 Gronau(1977)의 시간배분에 관한 이론적 전개는 주지할 만하다. Gronau는 가계행동분석의 중요한 모델인 미국 신가정경제학파의 기본적 입

장을 시간배분에 적용하였다. 그후에도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Bryant(1990)에 이르러서는 시간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전개가 정리되었다(허경옥·김인숙, 1996 재인용).

우리 나라에서도 196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간사용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주부들의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가사작업의 간소화를 위한 실험연구에 치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등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김의숙·이기춘, 1988).

더 나아가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노동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간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의숙·이기춘, 1988).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사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 중 특정활동 어느 하나에 사용된 시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가계구조와 가계의 증가된 수요 및 가족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주로 설명해 왔다. 특히, 자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정생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계구조나 효과에 제한적이었다(Douthitt, 1991).

그러나, 특정활동 한 가지에 관한 시간사용연구는 시간배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물리적 특성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정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은 다른 활동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outhitt, Zick & McCullough, 1990).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시간사용을 동시에 설명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시간사용행위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 될 연령층으로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는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관한 지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박미석 외, 2001).

1) 가사노동참여

가사노동은 가정내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족의 기능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며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유지, 그리고 가족의 발달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된다(이지선·조혜정, 1999).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가정은 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윤숙현·문숙재, 1997; 이지선·조혜정, 1999).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해 등을 어렵게 하여 인간발달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가족구성원 모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이지선·조혜정, 1999).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영역은 의생활관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정관리, 경영 및 장보기 등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청소년(중,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노동은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가족돌보기 및 심부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의 가사노동참여는 가사노동을 손쉽게 해준 가정기기의 보급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딸의 가사노동참여는 가정기기의 보급이후에 감소하였다(이지선·조혜정, 1999). 이처럼 가사노동참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소비상품이 등장하고 여성의 교육기회와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상승은 딸을 가사노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희·이기영, 1997).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 가족의 가사노동 참여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여도 주부에 의한 보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이지선·조혜정, 1999) 청소년의 직접적인 응답을 통한 가사노동 참여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여가활동

일반적으로 여가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가시간이란 단순히 일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박미석 외, 2001). 더 나아가서 여가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기능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정연·심미영·김영숙, 1997). 이 때문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여가생활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는 생활의 만족을 여가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대중들의 의식구조가 양적인 물질충족보다 생활전반에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여가를 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방지선·하지원, 1996).

Firestone과 Shelton(1988)의 여가시간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와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¹⁾, 연구모델에서는 여가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인 자녀수, 연령 등의 변수 이외에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시간을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허경옥·김인숙, 1996 재인용). 그밖에 이승훈(1995)은 청소년의

1) 소극적 여가는 TV 보기, 라디오 시청, 음악감상 등의 대중매체 감상, 독서, 대화, 휴식 등을 포함하며, 적극적 여가는 그림 그리기, 악기연주, 노래 및 연극 등의 창조적 활동과 스포츠 하기, 영화관람 및 문화행사 참가, 사교활동 등을 포함한다(Firestone & Shelton, 1988).

여가활동을 크게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놀이오락활동, 관광행락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고조되어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생활속에서 여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여가가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성인들의 여가활동 못지 않게 청소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성인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갈등의 정도가 심하고 학업이나 대학진학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그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방지선·하지원, 1996). 그러나 청소년들이 직면한 특수상황에서 여가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가능케 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를 긍정적인 측면의 문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인보다 훨씬 중요한 활동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방지선·하지원, 1996). 특히, 여가활동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학업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소년기의 여가활동경험이 성인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문화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정연·심미영·김영숙, 1997).

3) 과외교육

일반적으로 과외교육이라 하면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학교교육이외의 교육의 장에서 받는 일체의 교육,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과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 부족한 지식을 보충, 보완하는 일체의 교과수업외의 활동, 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별도로 받는 모든 교습행위"로 정의된다. 이에겐 개인이나 그룹지도를 비롯하여 학원수강은 물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

수업, 자율학습, 학습지구독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습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윤정일 외, 1996; 최창섭, 2000 재인용).

청소년들의 과외교육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00년 10월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수도권 신도시 학부모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5%의 중학생이 한 과목 이상의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70.2%)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2000년)한 바에 따르면 중학생의 평균 과외 수업시간은 1주일에 10.6시간으로 고등학생의 9.5시간보다 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1년, 3월 15일자).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교육비의 67.8%(1998년)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공은배·백성준, 1994; 김홍주 외, 1998). 이처럼 현재 한국의 교육비 문제는 과외수업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로 개별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몫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유형선·윤정혜, 1999).

3.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사노동참여시간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가사노동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outhitt, 1991). 특히, 청소년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는 어린 자녀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gle, Tasker & Morton, 1982).

자녀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녀의 연령, 성별, 가계소득 등의 인구통계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부모의 교육 수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나이는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Douthitt, 1991). 미국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참여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추정하였으며(Timer, Eccles & O'Brien, 1985; Walker & Woods, 1976), 특히,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Walker & Woods, 1976; 이지선 · 조혜정, 1999 재인용). 반면, 우리 나라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경자, 1983). 또한 가사노동참여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uthitt, 1991; Cogle, Tasker & Morton, 1982; Timmer, Eccles & O'Brian, 1985; 이지선 · 조혜정, 1999). 그 밖에 가계소득이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Douthitt, 1991; 이지선 · 조혜정, 1999).

둘째, 자녀의 가사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자녀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uthitt, 1991; Timmer, Eccles & O'Brien, 1985).

셋째, 자녀 양육목표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사노동참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Douthitt, 1991). 또한 가정내 어린 자녀의 존재는 청소년들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Timmer, Eccles & O'Brian, 1985).

끝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적인 가사활동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돌보기에 대한 자녀의 시간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선 · 조혜정, 1999).

2) 여가활동시간

청소년의 여가시간 측정은 주로 사회활동 및 취미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uthitt, 1991).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나 교육수준, 가계소득, 성별에 따라서도 여가활동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immer, Eccles & O'Brian, 1985; 이정연 · 심미영 · 김영숙, 1997; Fine, Mortimer & Roberts, 1990; Raymore, Godbey & Crawford, 1992).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평일이나 휴일에 자신들을 위한 개별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스포츠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며 주말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V를 적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Timmer, Eccles & O'Brian, 1985). 또한 여학생은 주로 관람 및 감상활동 등의 소극적 여가에, 남학생은 스포츠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ne, Mortimer & Roberts, 1990, Raymore, Godbey & Crawford, 1992). 나이가 많은 자녀는 평일과 휴일에 친구방문, TV보기, 테잎이나 라디오청취 등의 소극적인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Timmer, Eccles & O'Brian, 1985),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스포츠활동, TV청취, 독서, 개인적인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평일의 TV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 심미영 · 김영숙, 1997). 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활동 형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석 외, 2001; 이정연 · 심미영 · 김영숙, 1997).

3) 과외수업시간

특히 과외수업(교육)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학교수업과 관련활동들이 자녀 시간사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Douthitt, 1991). 특히, 중 ·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과 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공부와 관련하여 자녀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Timmer, Eccles & O'Brian, 1985).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을 비교한 Larson과 Verma(1999)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학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여가활동의 내용도 대부분 정적인 여가가 중심이 된 취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미석 외, 2001). 특히, 성적이 상위 집단에 속한 자녀일수록 공부에 치중하여 가사노동 등의 활동은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정한선, 1989).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11월 20일부터 1주일간의 예비조사를 통한 설문지의 수정 및 보완을 토대로 하여 본 설문조사는 1999년 1월 1달간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2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부실 기재와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249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사용영역인 과외수업시간, 여가시간(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및 가사노동 시간에 청소년자녀가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²⁾.

종속변수로서 과외수업시간, 여가시간 및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인가로 측정하였다. 그 중 여가시간은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과외수업시간은 학교밖에서의 과외 및 학원수강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가사노동참여시간은 설거지, 청소, 빨래질기, 심부름 등 집안일 돕기에 사용한 시간 모두를 측정하였다. 소극적 여가는 TV보기 및 라디오청취, 음악듣기, 비디오, 신문 및 잡지 보기 등에 사용한 시간을, 적극적 여가는 취미활동, 스포츠활동,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에 사용한 시간 모두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는 본인의 연령, 성별, 교육정도, 가계 총소득, 부모님의 교육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의 인구통계 요인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을 포함하였다. 본인의 교육정도는 현재 중학생인지와 고등학생인지로 구분하였다.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중졸미만에서 대학원 졸업까지의 4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가정에 7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계 총소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에 기타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끝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은 가정내에서 자녀의 성역할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모델 및 분석방법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추정모델은 다음과 같다(3.1)³⁾:

$$\begin{aligned} \text{(수식 1) 시간사용}_i &= \beta_0 + \beta_1 \text{나이} + \beta_2 \text{성별} + \beta_3 \\ &\text{교육정도} + \beta_4 \text{부교육수준} + \beta_5 \text{모교육수} \\ &\text{준} + \beta_6 \text{어린동생유무} + \beta_7 \text{모취업여부} + \\ &\beta_8 \text{가계소득} + \beta_9 \text{부자녀관} + \beta_{10} \text{모자녀관} \\ &+ \varepsilon_i, i = \text{가사노동참여, 여가활동(적극적} \\ &\text{\& 소극적), 과외수업.} \end{aligned}$$

LIMDEP(7.0)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Tobit 모델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시간사용(수식 1)을 분석하였다(Greene, 1995). 종속변수가 제한적인 연속변수일 경우, 예를 들면,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이 특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또는 몇 분 등으로

2) 학교수업시간이나 수면시간 및 기타 생리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영역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교육수준과 모교육수준, 자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공선성문제를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제한적이며 변수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경우는 Tobit 모델이 적합하다(Griffiths, Hill & Judge, 1993). 즉, 종속변수가 0보다 크면 행위를 관찰할 수 있으나 0보다 작으면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addala, 1992):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크기를 제시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Ziemer & White, 1981; Greene, 199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72%가 여학생이며, 평균 연령은 약 1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의 청소년이 중학생이며, 69%의 청소년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득은 약 296만원이며 가정내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52%, 어머니의 경우 31%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로 나타났다. 그 중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가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 60%, 어머니의 경우 32%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다소 덜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시간사용실태

하루 중 청소년이 가사노동, 과외수업 및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사노동의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249)

특성	평균(표준편차)	특성	평균(표준편차)
가계총소득(만원)	295.59(134.36)	연령(세)	16.78(2.30)
특성	빈도수(%)	특성	빈도수(%)
교육정도		성별	
중학생	78(31.3%)	여성	180(72.3%)
고등학생	171(68.7%)	남성	69(27.7%)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중졸미만	19(7.6%)	중졸미만	38(15.3%)
고졸	101(40.6%)	고졸	135(54.2%)
대졸	97(39.0%)	대졸	61(24.5%)
대학원졸	32(12.9%)	대학원졸	15(6.0%)
어린동생유무		모취업여부	
있다	4(1.6%)	그렇다	87(34.9%)
없다	245(98.4%)	그렇지 않다	162(65.1%)
부자녀관(전통적)		모자녀관(전통적)	
매우 그렇다	44(17.7%)	매우 그렇다	11(4.4%)
대체로 그렇다	105(42.2%)	대체로 그렇다	68(27.3%)
보통이다	63(25.3%)	보통이다	67(26.9%)
대체로 그렇지 않다	33(13.3%)	대체로 그렇지 않다	85(34.1%)
전혀 그렇지 않다	4(1.6%)	전혀 그렇지 않다	18(7.2%)

〈표 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분/하루)

(N=249)

가사 노동				과의 수업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균	35.7분	평균	64.5분	평균	95.8분	평균	35.9분
0시간	73(29.3%)	0시간	34(13.7%)	0시간	95(38.2%)	0시간	179(71.9%)
30분이하	89(35.7%)	30분이하	54(21.7%)	30분이하	0(0.0%)	30분이하	0(0.0%)
60분이하	66(26.5%)	60분이하	93(37.3%)	60분이하	19(7.6%)	60분이하	31(12.4%)
90분이하	5(2.0%)	90분이하	13(5.25%)	90분이하	25(10.0%)	90분이하	7(2.8%)
120분이하	14(5.6%)	120분이하	34(13.7%)	120분이하	34(13.7%)	120분이하	11(4.4%)
120분초과	2(0.8%)	120분초과	21(8.4%)	120분초과	76(30.5%)	120분초과	21(8.4%)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균	73.8분	평균	193.5분	평균	202.6분	평균	374.9분
0시간	66(26.5%)	0시간	23(9.2%)	0시간	6(2.4%)	0시간	3(1.2%)
30분이하	33(13.3%)	30분이하	3(1.2%)	30분이하	5(2.0%)	30분이하	1(0.4%)
60분이하	50(20.1%)	60분이하	39(15.7%)	60분이하	17(6.8%)	60분이하	1(0.4%)
90분이하	29(11.6%)	90분이하	4(1.6%)	90분이하	22(8.85%)	90분이하	5(2.0%)
120분이하	36(14.5%)	120분이하	33(13.2%)	120분이하	34(13.7%)	120분이하	6(2.47%)
120분초과	35(14.1%)	120분초과	147(59.4%)	120분초과	165(60.3%)	120분초과	233(93.6%)

경우 평일에는 약 36분, 휴일에는 64분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수업에 쫓기는 평일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휴일에 집안일을 더 많이 돕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청소년의 70% 이상이 평일과 휴일에 2시간 이하의 시간을 가사노동(집안일 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외수업의 경우는 평일에 96분, 휴일에 36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는 다시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소극적 여가는 평일에 203분, 휴일에 37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여가는 평일에 74분, 휴일에 19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여가활용이 소극적 여가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수업에 제약을 받지 않는 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시간 결정요인분석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평일의 경우 본인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휴일의 경우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계소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여부는 평일과 휴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은 한계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16분과 12분 감소하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각각 12분과 15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가사노동에 대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자녀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outhitt, 1991; Timer, Eccles & O'Brien, 1985). 이처럼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는 어머니의 개별특성이 중요한

〈표 3〉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시간 결정요인분석

(N=249)

변 수	평일			휴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연령	2.001	0.856	1.39	-0.182	-0.075	-1.59
성별 (여성=1)	14.380	1.739	10.00	33.101**	3.841	28.79
교육정도	-16.062*	-2.086	-11.17	-5.859	-0.738	-5.10
부교육수준	8.988	1.401	6.25	1.178	0.176	1.02
모교육수준	-23.638**	-3.542	-16.44	-13.466*	-1.985	-11.71
어린동생유무	-13.291	-0.495	-9.24	28.002	1.008	24.36
모취업여부	17.928*	2.365	12.47	17.262*	2.175	15.02
가계소득	-0.031	-1.099	-0.02	-0.065*	-2.182	-0.06
부자녀관	0.393	0.104	0.27	-1.196	-0.304	-1.04
모자녀관	-2.343	-0.644	-1.63	0.870	0.229	0.76
상수(intercept)	50.256	1.368		89.923*	2.345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996.0540			-1193.462		

* p < .05, ** p < .01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자녀의 가사노동참여를 살펴봄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일의 경우 고등학생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11분 감소하고, 휴일의 경우 여학생일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29분 증가하며,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참여시간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계효과 -0.06).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학교수업을 비롯한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평일에 비해 휴일에 자유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아직도 가사노동참여는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로 인식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outhitt, 1991; Cogle, Tasker & Morton, 1982; Timmer, Eccles & O'Brian, 1985; 이지선 · 조혜정, 1999).

끝으로 가계소득의 증가는 청소년 자녀의 가사노동을 대체할 여러 가지 방법이나 도구의 활용을 가

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outhitt, 1991; 이지선 · 조혜정, 1999).

4.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 결정요인분석

청소년의 여가활동시간의 결정요인분석은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소극적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일의 경우 본인의 교육정도, 어린 동생 유무, 휴일의 경우 성별, 본인의 교육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평일과 휴일에 동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본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생일 경우 소극적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각각 40분과 82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수업을 비롯한 관련활동에 사용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평일의 경우 어린 동생이 가정에 있을 경우 소극적 여가시간이 118분 감소함을 한계효과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여가시간을 어린 동생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표 4〉 청소년의 소극적 여가활동시간 결정요인분석

(N=249)

변 수	평일			휴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연령	6.910	1.373	6.65	6.819	0.890	6.72
성별 (여성=1)	4.944	0.278	4.76	67.945*	2.508	66.91
교육정도	-41.569*	-2.501	-39.99	-83.070**	-3.286	-81.81
부교육수준	-11.366	-0.816	-10.93	-28.474	-1.342	-28.04
모교육수준	-10.037	-0.711	-9.66	-4.024	-0.187	-3.96
어린동생유무	-122.522*	-2.078	-117.87	-124.651	-1.388	-122.75
모취업여부	-6.116	-0.365	-5.88	-2.477	-0.097	-2.44
가계소득	-0.068	-1.089	-0.06	-0.082	-0.866	-0.08
부자녀관	-13.951	-1.694	-13.42	-20.891	-1.668	-20.57
모자녀관	6.962	0.875	6.70	15.715	1.298	15.48
상수(intercept)	246.966**	3.090		476.299**	3.914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1502.469			-1620.668	

* $p < .05$, ** $p < .01$

생각된다. 휴일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소극적 여가 시간이 67분 증가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극적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에 일치하는 결과이다(Fine, Mortimer & Roberts, 1990, Raymore, Godbey & Crawford, 1992).

다음으로 청소년의 적극적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일의 경우 성별, 본인의 교육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평일의 경우 여가활동보다 학교수업이나 과외수업이 더 중요한 관심영역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휴일의 경우 여학생일 경우 적극적 여가시간이 42분 감소하며, 고등학생일 경우 적극적 여가시간이 42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적극적 여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에 일치하는 결과이다(Fine, Mortimer & Roberts, 1990, Raymore, Godbey & Crawford, 1992).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청소년의 과외수업시간 결정요인분석

청소년의 과외수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평일의 경우 성별, 본인의 교육정도, 가계소득이, 휴일의 경우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과외수업시간이 각각 40분과 53분 감소하며,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외수업시간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계효과 0.10).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정규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과외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과외수업시간이 중학생보다 적다는 한국교육개발원(2000)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외수업시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재라고 설명할 수 있다. 휴일의 경우 청소년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외수업시간은 약 7분 감소하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외수업시간은 약 20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공부와 관련된 자녀의 시간

〈표 5〉 청소년의 적극적 여가활동시간 결정요인분석

(N=249)

변 수	평일			휴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연령	7.708	1.617	5.44	2.515	0.364	2.23
성별 (여성=1)	-30.742	-1.806	-21.71	-47.380*	-1.935	-41.92
교육정도	7.664	0.489	5.41	47.994*	2.092	42.46
부교육수준	15.233	1.158	10.76	18.118	0.943	-16.03
모교육수준	-5.006	-0.375	-3.53	26.024	1.337	23.02
어린동생유무	56.710	1.059	40.04	141.304	1.749	125.01
모취업여부	11.054	0.698	7.80	22.470	0.973	19.88
가계소득	-0.008	-0.134	-0.005	-0.084	-0.979	-0.07
부자녀관	2.181	0.282	1.54	15.482	1.359	13.70
모자녀관	-8.027	-1.065	-5.67	-14.565	-1.320	-12.88
상수(intercept)	-76.513	-1.013		100.322	0.914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1163.922			-1486.557		

* p < .05, ** p < .01

〈표 6〉 청소년의 과외수업시간 결정요인분석

(N=249)

변 수	평일			휴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추정계수	t값	한계효과
연령	-5.331	-0.927	-3.65	-27.778*	-2.151	-6.75
성별 (여성=1)	-57.710**	-2.829	-39.54	-62.701	-1.516	-15.23
교육정도	-76.733**	-3.965	-52.58	17.588	0.443	4.27
부교육수준	4.903	0.301	3.36	-29.876	-0.878	-7.26
모교육수준	13.421	0.830	9.20	82.257*	2.483	19.98
어린동생유무	-54.872	-0.759	-37.60	-120.562	-0.696	-29.28
모취업여부	-20.871	-1.033	-13.82	-68.951	-1.635	-16.75
가계소득	0.143*	1.991	0.10	0.283	1.897	0.07
부자녀관	13.167	1.383	9.02	10.153	0.505	2.47
모자녀관	0.203	0.022	0.14	-9.973	-0.512	-2.42
상수(intercept)	225.464*	2.408		176.855	0.876	
로그우도값(Log-likelihood)	-1029.264			-542.9937		

* p < .05, ** p < .01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Timmer, Eccles & O'Brian, 198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의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특히, 개별 청소년마다 다양한 사용패턴을 보일 수 있는 가사노동 참여, 여가 및 과외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간활용과 개별 청소년의 특성이나 가정의 특성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루 중 청소년의 시간사용은 각각의 활동(가사노동, 여가활동, 과외수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평일과 휴일에 따라 시간사용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여가활동은 휴일에 더 많이, 과외수업은 평일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시간활용에 있어서 요일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사용 패턴이 평일과 휴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5일 수업의 시행이 계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휴일 시간사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적인 시간사용의 측면 외에도 각각의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때, 주로 본인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성별이 청소년의 대부분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간사용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시간사용교육에 있어서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포함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차이점을 인식하여 시간사용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시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활용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성역할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의 차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시간사용 문제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부모의 가치관은 청소년 시간사용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가족의 역할,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보다 사회나 학교에서 동료나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또

래집단이나 사회문화(대중문화)적 요인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시간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시간사용을 조사한 결과 과외수업은 주로 평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나 가사노동이나 소극적·적극적 여가는 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과외수업은 주로 평일에, 가사노동이나 여가활동은 주로 휴일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평일이나 휴일을 막론하고 여가시간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여가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각각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함을 인지하여 확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지도보다는 개별 청소년의 특성이나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이 분야에서 계속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같은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많은 연구들의 경우에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이나 모델없이 실증연구를 축적하여 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전거나 모델을 도입, 응용하여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성인이나 주부와 달리 청소년의 특성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방법적 측면에서는 시간사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차적 시간, 공동시간 등의 개념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일지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 실제조사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 활동별 시간 측정법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측정방법상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공은배 · 백성준(1994).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 김경자(1983). 고등학교학생의 가사노력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성희 · 이기영(1997). 가정기기가 가사노동수행 과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81-94.
 4) 김의숙 · 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71-182.
 5) 김홍주 · 한유경 · 김현철 · 김성은 · 김연(1998). 한국의 교육비조사연구.
 6) 문숙재(1994). 가정관리학. 서울: 학지사.
 7)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학지사.
 8) 박명숙(1991). 소비자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박명숙 · 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89.
 10) 박미석 · 이정우 · 김명자 · 계선자 · 김경아 · 우이란(2001).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I): 청소년의 여가 문화 실태 및 여가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4), 61-78.
 11) 방지선 · 하지원(1996). 청소년의 성별 및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인지도 차이.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5, 125-138.
 12) 유형선 ·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13) 윤숙현 · 문숙재(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

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9-129.
 14) 윤정일 외(1996). 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5) 이승훈(1995). 청소년의 여가생활양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4, 161-182.
 16) 이정연 · 심미영 · 김영숙(1997).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분석-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5.
 17) 이지선 · 조혜정(1999). 중 · 고등학생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11-125.
 18) 정한선(1989). 중학생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최창섭(2000). 과외와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근심거리. 사회과학연구 제 39집, 127-148.
 20)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21) 허경옥 · 김인숙(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81-195.
 22) 국민일보. 2001년 3월 15일.
 23) 중앙일보. 2001년 8월 2일.
 24) Berk, R. 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 F. Berk (ed). *Woma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
 25)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 Press.
 26) Cogle, F.L., Tasker, G.E. & Morton, D.G.(1982). Adolescent time use in household work. *Adolescence* 17, 451.
 27) Douthitt, R. A., Zick, C. D., & McCullough, J. (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23-52.
 28) Douthitt, R.A.(1991). Children's time use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Does household

- organization matt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0(1), 40-51.
- 29) Feldman, L. P. & Hornick, J.(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407-419.
- 30) Fine, G.A., Mortima, J.T. & Roberts, D.F.(1990). Leisure, work and the mass media. In Feldman, S.S. & Eliot, G.R.(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31) Firestone, J., & Shelton, B. A.(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 478-495.
- 32) Greene, W. H.(1995). *LIMDEP (7.0): User's manual*. New York: Econometric Software, Inc.
- 33) Griffiths, W. E., Hill, R. C. & Judge, G. G.(1993). *Learning and practicing econometr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34)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023.
- 35) Hendrix P.E.(198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ime use: Proposed measures and preliminary evidenc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35-40.
- 36) Larson, R.W. & Verma, S.(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y bulletin 125, 701-736.
- 37) Li, W. & Hung, K.(1997). Consumption of discretionary time: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4, 542-550.
- 38) Maddala, G. S.(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39) Mincer, J.(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H. G. Lewis, ed., Univ.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Series No. 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40) Raymore, L.A., Godbey, G.C. & Crawford, D.W. (1992). Self-esteem,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ir relation to perceptions of constraint on lei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99-118.
- 41) Robinson, J.P.(1996).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 213-230.
- 42) Timmer, S.G., Eccles, J. & O'Brian, K.(1985). How children use time. In F.T. Juster & F.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53-382.
- 43) Walker, K. & Woods, M.(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4) Ziemer, R. F. & White, F. C.(1981). A Tobit model of the demand for farmland. South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3(2), 105-109.